

데스크 시각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음악의 힘’



김미은 문화부장

본쟁 지역인 팔레스타인의 허름한 강당.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마에스트로(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월광’ 2악장이 흐른다. 아르헨티나 출생으로 이스라엘에서 자란 유대인인 그는 공연 후 한 소녀와 나는 대화에서 깊은 감명을 받는다. 소녀는 “당신이 와서 너무 기쁘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온 것 중에 군인이나 탱크가 아닌 건 당신(당신이 연주해 준 음악)이 처음이었다”고 말한다. 바렌보임은 이 말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의미를 찾았다고 고백한다.

바렌보임의 팔레스타인 연주

그는 ‘팔레스타인의 지성’으로 불리는 에드워드 사이드와 함께 음악을 매개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지원하는 평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 상극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아랍 국가 젊은이들로 오케스트라를 조직, 괴테의 ‘서동시집’(西東詩集, West-

ostlicher Divan)에서 이름을 딴 ‘서동시집오케스트라’를 출범시킨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오케스트라의 여정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 ‘다니엘 바렌보임과 서동시집오케스트라’는 감동적이다. 특히 분쟁의 한반도인 팔레스타인 라말라에서 연주회를 여는 마지막 대목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무엇보다 여전히 분단 상태인 우리로서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더욱 몽글몽글하다.

라말라는 ‘736개의 검문소를 지나고, 45분이면 도착할 곳을 아홉 시간에 걸쳐 우회하고, 최대 열한 번이나 차를 갈아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단원들은 영국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접선’하듯 공연 장소에 도착해 ‘검문소’에 흥분도 되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다. 비 오는 밤을 쏟아 내는 바렌보임의 지휘에 따라 단원들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연주한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에도 인상적인 연주회가 열렸다. 세계적인 거장 로린 마젤이 이끄는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이다. 뉴욕필은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등을 연주했고 앙코르 곡으로 ‘아리랑’을 들려주었다. 지난 2011년, 바렌보임과 서동시집오케스트라는 광복절 임진각에서 평화 콘서트를 열고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했다.

최근 한 달 사이 남북 관계는 매일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 중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회담 등이 추진되고, 남한 공연단은 평양을 방문한다. 남북 화해의 물고

를 튼 건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배턴(baton)을 이어받은 광주시는 폐막식 당시 2019년 7월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발판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슬로건으로 내건 수영대회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등의 방한을 추진하는데 국제수영연맹 회장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향의 평양 공연 어떻게

최근의 남북 문화 교류를 보며 광주시가 수영대회와 연계해 광주시립교향악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됐다. 현재 광주시향을 이끌고 있는 김홍재 상임 지휘자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1979년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지휘봉을 잡은 데 이어 1987년에는 교토 시의회의 제안으로 교토시교향악단을 이끌고 평양 공연을 가졌다. ‘영원한 스승’ 윤이상과 함께 방북한 1990년에는 평양 국립교향악단을 지휘, 황병기 곡 ‘우리는 하나’를 연주했다.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아리랑 판타지’를 한국에서 초연한 이도 그다.

재일교포인 그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본 국적도, 남한 국적도, 북한 국적도 갖지 않고 무국적자로 지냈다. 그는 얼마 전 기자와 인터뷰에서 “공 통일이 될 거다. 우리가 갈 곳은 조선”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고 했다. 부친 타계 후,

2005년 그는 한국 국적을 얻었다.

앞서 소개한 다큐멘터리의 원제가 ‘Knowledge is the Beginning’임을 의 미심장하다. ‘서로 다른 시선, 생각을 가진 이들의 소통’을 지향하는 서동시집오케스트라는 자신들의 활동이 “미약하지만, 미래를 위해 길을 트는 것”이라고 말한다.

남북 관계처럼 변화무쌍한 것은 없을 것이다. 선부터 낙관주의로 일을 진행하다가 는 낭패를 보기 쉽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서로를 알아 가며 접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성과주의’에 비해 성급하게 추진하는 건 금물이다.

마침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북한의 집체화가 전시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파킹찬스’전에 참여한 박찬욱·한경 형제 역시 남북 문제에 주목한다. 또 아피차pong 위라세타룬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은 민주·평화·인권 등 광주의 정체성을 살린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는 셈이다.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평양과 광주에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타전하는 ‘역사의 현장’이길 바란다. 내년에는 취재 기자로 평양에 가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평화의 선율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다큐멘터리는 꼭 한번 보시길. 요요마의 첼로 선율,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 등 주옥같은 멜로디들이 흐르는 사이사이로 전해지는 묵직한 메시지와 감동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mekim@kwangju.co.kr

은편칼럼

건축(建築)은 누구 겁니까?



박홍근 건축사·포유건축 대표

3년 전 4월, 필자가 참여하는 ‘동신포럼’에 모 지역 교육감께서 강사로 나오셨다. 강연내용 중 인상 깊은 부분은 질문이 없는 우리 교육 현실과 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부분이었다. 당시 보여 주었던 동영상에 아직도 생생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G20 서울정상회담 폐막식에서 미국 오바마 전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개최국에 대한 배려로 특별히 한국 기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한참을 기다렸다. 하지만 질문을 기다리는 오바마에게 한국기자들은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 사이 중국 기자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하겠다고 우겼다. 결국 그는 질문 기회를 가져갔고, 한국 기자들은 바라만 봤다.” 질문 없는(?)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기 고

개헌, 그리고 행정이 답아야 할 사람 중심 사고



권옥 전남도의회 부의장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은 미래 세계를 뒤흔들고, 여러 영역에서 국가적·사회적 위기와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변화에 따른 예고와 예측은 가능하므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시대의 최대 화두는 미래의 변화다. 그 중심은 인간·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 국제화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다. 곧 지방선거가 시작된다. 자치단체를 이끌 지도자를 새롭게 선출한다. 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사람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본다. 미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 생존 경쟁 시대에 놓인다. 생존 경쟁에서 앞서가지 않으면 자연 도태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 중심의 사고 방식과 사람 중심 사업, 사람 중심 정책 등 사람 중심의 인식과 사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일 밝힌 개헌안에 대해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사람 중심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것이다.

전남도가 앞으로 도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에 바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 필요하다.

행정에서의 사람 중심은 곧 공무원들 개개인이 해야 할 변화와 혁신이다. 사람 중심의 변화와 혁신은 여러 형태의 전문적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겠지만,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서 많은 것을 터득하고 배워야 한다. 결국 무대에는 무대 위의 주인공도 중

물인 건물(building)과 구분된다. 건축(architecture)은 ‘건물’에 설계자의 조형 의지와 문화 예술적인 의미가 더해진 개념이다.

영국의 건축역사학자인 N.페프스너는 건물과 건축이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차고(車庫)는 건물이고, 대성당(大聖堂)은 하나의 건축이다. 사람이 들어가는 데 충분한 넓이를 갖춘 것은 모두 건물이지만, 건축이라는 말은 미적 감동을 목표로 설계된 건물에만 사용된다.”라고.... ‘건축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가 될 것 같다.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본다. ‘건축은 누구 겁니까?’ 첫 번째는 건축주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축주라는 이야기도 한다. 건축주의 권한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기에 나온 말이라 생각한다. 어찌 되었든 땅을 구입하고, 설계하여 건축을 짓는 사람은 건축주다. 주인이라는 것에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 지어진 이후를 생각해 보자. 건축주만이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용자가 따로 더 많이 있다. 주인은 누구인가. 소유자만이 주인일까?

두 번째는 공공(公共) 것이다. 건축이 완성된 이후 이용은 소유자만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이다. 건축은 공공과 이용자의 생활 환경을 만든다. 건축은 도시를 만

드는 요소들이다. 하나하나의 건축들이 모여 우리 삶의 공간과 장소를 만든다. 문화를 만든다. 이는 건축이 이용자 시민,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세 번째는 후손 것이다. 잘 만들어진 건축유산은 후손들의 먹거리 자원이 된다. 수천 년 전의 그리스 로마 유적을 보라. 수백 년 전의 인도 타지마할과 프랑스에 펠탈, 백여 년 전의 바르셀로나 가우디 작품들을 보라. 그리고 수십 년 전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국가, 도시, 시민들 삶의 자원이 되어 있다.

건축은 누구 겁니까? 짓는 동안과 서류상을 제외하고 공공의 겁니까. 후손들 겁니까. 땅 사고, 설계하고, 짓고, 세입내고, 부를 축적하는 데는 어느 개인이나 조직의 소유물이지만, 완성 후엔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 거주자와 이용자 대다수가 시민이고, 도시 기관과 분위기, 경쟁력의 자산이 된다. 잘 지어진 건축은 도시의 유산이 되고 후손의 먹거리 자원이 되지만, 잘못 만들어진 건물은 부채로 남는다.

이런 소중한 ‘건축’을 잘 짓도록 모두가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 문화로, 제도로, 참여와 배려로, 관심과 사랑으로 잘 지어지게 해야 한다. 삶을 위해 밥을 짓듯,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을 짓자.

社 說

타이어뱅크, 금호타이어 인수할 수 있을까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국내 타이어 유통 전문 기업인 타이어뱅크(주)가 인수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해 새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그동안 해외 매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희정 타이어뱅크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통째로 매각되는 것을 국내 기업으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가 전국의 400여 개 유통 매장을 갖추고 있어 즉시 판매를 증가시켜 금호타이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대전에 본사를 둔 타이어뱅크의 2016년 말 기준 매출액은 3700억 원, 영업이익은 660억 원 수준이다. 가장 중요한 인수

자금 조달에 대해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를 상장하거나,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타이어뱅크의 인수전 가세 소식에 금호타이어 노조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타이어뱅크에서 공식 제안이 온 바 없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양사의 규모나 현금 조달 능력 등을 비교하며 인수 여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회사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려면 타이어뱅크가 자금 조달 계획과 회사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채권단도 이를 앞으로 다가오는 자율협약 종료 이유를 법정관리 신청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인수 의사를 밝힌 국내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이어뱅크 외에도 다른 복수의 국내 업체들이 인수 의사를 내비쳤다는 게 금호타이어 노조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은밀한 살인자’ 미세먼지 광주도 덮쳤다

지난 주말부터 일주일 가까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서울·경기는 물론 광주 지역까지 온통 하늘을 뒤덮었다. 회푸런 댓밭 하늘은 실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했다. 길거리에도 마스크를 쓴 행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 전북, 광주 등 서쪽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와 수도권에서는 비상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보건 당국에서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비상 문자 메시지를 송출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공포로 온 나라가 떨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에서도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 역시 모든 시·군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서두를 계획

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며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항의를 하자는 청와대 청원에 벌써 13만 명 넘게 참여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초미세먼지가 폐질환의 치명적 원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0~50%에 이른다는 사실도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중국 춘철 기간의 폭죽이 초미세먼지로 국내에 유입된 사실을 최초로 규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되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관계 부처와 국회 또한 고농도 대기오염 긴급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겠다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無 等 鼓

영국의 경제학자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은 1955년 ‘이코노미스트’에 역사적인 에세이를 발표했다. 내용의 요체는 “관료 조직은 그 역할이나 업무와는 상관없이 항상 사람을 증가시키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파킨슨 법칙’이다.

파킨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 사무원으로 근무할 때 관료 조직의 속성을 깨달았다. 1914년 2000명이던 영국 해군 본부 인력은 1928년 356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국 주력 함정의 3분의 2가 줄고 사병 수도 1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3분의 1로 줄었지만 관리자 수만 80% 늘어난 것이다.

파킨슨 법칙에는 두 가지 명제가 있다. “관료는 경쟁자가 아닌 부하들이 대폭 늘어나는 것을 바란다”는 것과 “관료는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처 이기주의와 불필요한 관직이 규제해 생긴다. 파킨슨 법칙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구레와 곡성 등 인구 3만 명 안팎의 시·군을 보더라도 공무원 수는 700여 명 안팎으로 인구 10만 명이던 때보다 더 많다.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과 국가 부채 뉴스가 파킨슨 법칙의 어두운 면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는 26일 국가공무원 4637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의결하며 현장 중심 인력을 충원한다고 발표했다. 한때 10%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 등 현장과 무관한 힘센 부처의 본부 인력이었다.

한편 ‘2017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보면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인 1555조 원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54%가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담금이었다. 더욱이 지난해 늘어난 국가 부채 122조 원 중 76%가 공무원과 군인들의 연금을 떼우기 위한 빚이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 명 새로 채용한다니 국가 부채 증가분에서 연금 총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질 것이다. 향후 4년간 공무원과 군인 연금 총당을 위해 들어가는 월세만 250조 원으로 추정된다. 손쉬운 공무원 증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 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썸짓돈으로 공무원들의 고액 연금을 보장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